28일 오전 캄보디아 캄포트 산악지대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깔멧병원에서 교포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천후속 육안비행이 화 불러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원인분석 돌입

블랙박스 판독이 열쇠…30일 유해 국내로

한국인 관광객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캄보디아 PMT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악천후 속에 육안식 별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 항공당국과 공동으로 이번 추락사고 원인 규명작업에 착수한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건교부 항공전문가 2명은 사고기 잔해가 발견된 직후 현장을 답사, 기체의 상태와 항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 조종사의 과실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정부 고위관리는 사고기 조종사가 정기항로를 벗어나 육안으로 지형을 식별하면서 우회비행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측에 전달해왔다.

이 고위관리는 "바다에서 보꼬산 정상쪽으로 비스듬히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항공기가 산에 충돌할 위험을 느껴 조종사들이 자주 산 정상 북쪽으로 항로를 이동한다"면서 사고 당일 악천후로 계기비행을 하지 않고 육안식별비행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이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고 원인은 악천후와 조종사 과실을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사도 "폭풍우가 심해 항로를 변경, 산쪽으로 간 것이 사고를 내게 됐다"고 사고기의 항로이탈 사실을 확인하면서 "항로를 바꾸는데는 관제탑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조종사가 관제탑의 고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 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사고 당사국인 캄보디아를 주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한국과 항공기 제작국인 러시아가 공동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측이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를 자국으로 옮겨 판독키로 함에 따라 최종 판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PMT 항공사의 보상금 지급도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수습작업 완료에 따른 최종 신원확인 작업을 벌인 뒤 분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메콩강 유령제에 참가하고 대사관측과 장례 및 운구 절차를 마무리한 뒤 30일 오전 6시45분 희생자 시신과 함께 296석 규모의 대한항공 A330-300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프놈펜=연합뉴스

탑승자수 혼선 지속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의 탑승자수가 아직도 명확하지않아 보도진을 혼란시키고있다.

사고 첫날 22명과 27명으로 혼선을 빚었다가 22명으로 통일됐던 탑승자수는 27일 사체 수습과정에서 사망자의 수가 25명 또는 24명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 혼란을 빚고 있는 것.

일부 외신은 사망자수가 당초 알려졌던 22명이아니라 24명 또는 25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혼선은 지금까지 탑승예정자의 명단은 있으나 정확한 탑승자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추락사고를 낸 PMT항공사의 국내외 노선 운항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28일 캄보디아데일리가 보도했다.

힘 사룬 캄보디아 만간항공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한 대의 항공기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민간항공사의 운항을 제한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PMT항공 운항 당분간 허용

힘 사룬 국장은 그러나 "이번 사고의 조사는 이 항공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해 조사결과 잘못이 명백할 경우 상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프놈펜=연합뉴스

2·13 합의 이행·FTA 추가협상 집중 조율

송민순-라이스, 천영우-힐 워싱턴서 연쇄회담

美, 北 미사일 발사에 당혹…추가 발사 경고

방북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영변 핵시설을 방문키로 한 가운데 송민순 외교통상장관은 워싱턴에서 미 고위관리들과 연쇄 접촉, 2·13 합의 이행방안 조율에 나서 북핵폐기 프로세스가 급류를 타고 있다.

미 백악관은 그러나 27일 북한의 올해 세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간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해 무척 당혹스럽다"며 북한의 추가 발사를 엄중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의원대표단이 "북한측이 2·13 합의를 이행키로 약속했다"고 밝힌데 이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 봉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 낙관적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폐기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포함한 2단계 이행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송 장관은 28일 오전 국무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BDA문제 해결에 따른 2·13 합의 이행방안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문제를 집중 조율한다.

매코맥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라이스 두장관은 북핵 6자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주의제는 6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을 동행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 도착 직후인 27일 저녁 워싱턴 모처에서 힐 차관보를 비공개리에 만나 북한의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대북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26일 입북한 IAEA 실무대표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한과의 접촉이 아주 좋았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실무팀이 28일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고 29일 평양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영변 핵시설 폐쇄 자체 검증할 것"

키팅 태평양군 사령관 회견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군사령관은 27일 북한이 약속대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자체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변 핵시설 폐쇄 이후 다른 지역으로 핵활동을 이전할 것인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AP 등 외신들이 서울발로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홍콩의 친(親) 민주주의 입법의원들이 28일 홍콩 빅토리아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주먹을 치켜들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홍콩 반환 1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에 가두행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AP=연합뉴스

홍콩 입법의원들의 바닷속 시위

日 미야자와 前 총리 타계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가 28일 오후 도쿄 도내 자택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87세.

미야자와 전 총리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대장성 엘리트 관료를 거쳐 1953년 정계에 입문, 경제기획청 장관과 대장상(현 재무상) 등 주로 경제각료를 지낸 뒤 1991년 11월부터 93년 8월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그는 1997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에서 다시 대장상으로 기용돼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등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도쿄=연합뉴스

후지모리 前 페루 대통령
日 참의원 선거 출마

일본계 이민 2세로 페루 대통령을 지낸 알베르토 후지모리(68) 전 대통령이 오는 7월 29일 실시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현재 칠레에서 가택 연금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8일 일본의 군소 야당인 국민신당의 출마 요청을 수락,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했다고 정식 표명했다.

우정 민영화 문제로 자민당에서 출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 대행도 이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비례대표 후보로 옹립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날 교도통신의 현지 취재에 대해 "대통령 시절의 경험을 살려 나의 부모의 고향과 일본에 은혜를 갚기로 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내의 관심있는 정치 과제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와 일본의 연금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치안 개선 등을 들면서 "당선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국가원수가 일본의 국정 선거에 출마하기는 처음이다. /도쿄=연합뉴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굴욕

치약·애완동물 사료·타이어 이어 이번엔 압력밥솥·칫솔까지 '리콜'

최근 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치약, 완구제품, 애완동물사료, 타이어 등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압력밥솥과 칫솔까지 도마 위에 올라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최근 자국에서 수출한 압력밥솥과 칫솔이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리콜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서방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26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중국산 압력밥솥이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입업체에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 또 일본의 한 수입업체에 대해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산 칫솔 300만개를 회수토록 요구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이런 압력밥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도는 없지만 덮개가 열리기 쉬워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올해 4월 일본이 중국과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비망록을 체결한 이래 일본이 중국에 통보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선양=연합뉴스